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7:1)

다른 말로 말한다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아는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사는 날 동안만 율법이 사람을 주장하고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 합니다.

그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율법의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찌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7:2-3)

그는 율법을 가지고, 특별한 예를 들어, 사람이 사는 동안 율법이 그를 지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7:4상)

지금 바울은 6장에서 우리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롬6:6).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관계가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의 죄의 몸이 예수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7:4하)

내가 율법에서 자유 함을 얻었다는 것이 내가 육신의 소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좇아 마음대로 살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러한 뜻으로 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내가 율법으로 결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 다른 이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삶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믿는 자의 열매 맺는 삶이란 실제로 많은 경우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그 정도가 더욱 엄격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 하시는도다”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나는 믿음의 약한 자를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언약을 맺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나의 육신의 소욕을 만끽하기 위해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이것은 내가 이제 더 큰 법인 사랑의 법에 얽매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의 법이다” 는 말입니다.

이제 나의 삶은 예수를 위해서 열매 맺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때는 율법 아래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나타내고, 나의 의로움을 세우려 하였습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생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 열매는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의 결과인 것입니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나의 말이 너희 속에 있을 때에,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4-5). 만일 당신의 생활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고, 그의 말씀이 당신 속에 없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자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삶에서 의로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열매는 사랑인데, 그의 특성이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단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얻게 된 의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을 깨달으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한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 보려고, 이러한 아름다운 일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실패만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에,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결과로 그의 생명과 그의 열매와 그의 사랑이 나로부터 풍겨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7:5)

육신에 있을 때의 열매는 현저하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갈 5:19-21).

이제는 우리가 열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찌니라(7:6)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섬기지 않고, 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생명이 새로워져서 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7:7)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목적을 잘 이해한다면,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성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단지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서 실패했는가를 보여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롬3:20).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갈 2:21). 만일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율법이 와서 우리가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며,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자신을 던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바로 깨달으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이 항상 실수를 범하듯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취하여 의롭게 되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을 자기 나름대로 지켜보려고 애쓰다 보니, 아주 독선적인 자들이 되고, 그들의 특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왜곡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기를, ‘나는 선한 쪽에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의로움이나 거룩함의 기준으로 삼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욱 의롭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그러한 일은 나는 하지 않고, 당신이 하지 않는 그 일은 내가 하고 있으니, 내가 당신보다 더 거룩하다’ 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해 주는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고 말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7:7)

나는 탐심, 곧 다른 사람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는 강한 소원이 죄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인 바울은 강한 소원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강한 이성애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 성 관계를 원하는 소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그 소원을 행위에 옮겨 그들과 성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쁜 소원이 죄가 된다고 생각치 않았습니다. 하루는 성령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탐하지 말라, 다른 것을 갖기 위한 강한 소원을 버리라” 고 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여자와 성적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하다고 독선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강한 소원도 죄가 된다고 하니, 나는 범죄 하였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 5:27-28).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이 영적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바리새인으로써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모두 지켰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나는 결코 간음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죄하다고 말할지 모르나,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나올 때에 그는 갑자기, ‘오! 율법이 영적인 면을 다루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탐심하지 말라’ 하기 전에는 탐심이 죄인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7:8)

죄가 나를 사로잡아 여러 가지 강한 소욕이 내 속에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음욕이 불일듯이 일어나는 소원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특히 색욕입니다. 바울은 ‘강한 정욕이나 탐심을 하지 말라’ 는 계명이 오기 전에는, 이것이 죄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 그는 말하기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7:9)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또한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때는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으로써 바로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록하기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빌 3:4-6) 고 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께서서 항상 말씀하시던 바리새인 중의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지칭한 자들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돌아 다니며, 거리 구석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가 헌금하는 것을 만방에 나팔불어 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나는 흠 잡을 때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영적임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지적하고자 한 것입니다. 산상보훈에서 다섯 가지 상반되는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원래의 뜻과 상반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보이는 세상에 국한하여 해석하였으나, 하나님은 율법을 영적인 면에서 다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은 영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보니,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속에서 일어나는 동기가 태도가 행동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몽둥이로 사람을 쳐서 죽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는 깨닫기를, '내 속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분노가 있었구나!' 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 강한 욕망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이 올 때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율법은 나의 재판관이요, 나를 저주하여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율법이 내 마음 속에 있는 죄를 정죄하여 율법이 나를 사형을 언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7:10)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나를 저주하여 죽게 하였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7:11)

율법은 당신을 죽으므로 저주하는 일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당신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함이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열심히 따라 행하고 지키는 율법이나 규칙은 당신을 저주하여 죽음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7:12)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탐심하지 말라" 라는 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살인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한 계명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는 율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야만 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못이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있다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7:13)

하나님께서서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이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찾으려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어보려는 시도를 완전히 영원토록 단념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7:14상)

바울이 율법이 영적이라는 것을 그 동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7:14하)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율법에 나쁜 것이 없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적이요, 나의 죄가 사망을 불러 왔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7:15)

바울이 율법은 영적이고,, 자신은 육신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자신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7:16)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깨달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있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일은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일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런 일 중에 하나이며,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의롭게 되어 보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런 일 중에 하나이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같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 인줄 알면서도 내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만 되는 일을 나는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이 나서 길옆에 대어놓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가서, 도와 주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대답하기를, '주님,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쁘지 아십니까? 내가 약속도 있고 한데, 도저히 가서, 도와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은 행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내 앞에 내놓을 때에, 나는 먹지 말아야 함을 알면서도, 먹게 됩니다.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여러 가지의 예로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줄을 알면서도, 나는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7:16-17)

내 속에 두 가지 인격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그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을 따라가는 때가 있는데, 내가 육신을 따라 갈 때에, 나는 내 자신이 미워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은 하나님을 따라 가기 원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육신을 좇아 갈 때에는, 나는 마음이 아주 괴로우며, 그러한 일을 행한 내 자신이 아주 싫어집니다. 나의 본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다른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육신을 기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육신적인 죄성이 웅크리고 있어서, 나를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도록 자주 이끌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은 선하다고 인정합니다. 나는 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성인 육신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7:18상)

사람들이 대개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있는 문제는 바로 사람이 자신의 육신을 개선하거나, 개혁을 해보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육신의 행함을 좀더 잘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육신 속에 무슨 선한 것을 나타내 보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내 육신 속에 어떤 장점을 하나님께 보여 인정을 받고, 내 자신이 스스로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보라 나같이 성격이 온화하고, 결코 화를 내지 않고, 항상 관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겠는가?' 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관대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실상은 사람 속에 선한 것이 전혀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내 육신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실패의 쓴 잔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능력이나 힘이나 재능을,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반석과 같은 척' 이라고 내 자신을 부르곤 했는데, 나는 내 자신이 그렇게 믿고 말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수어 깨뜨리시므로, 이제는 '모래와 같은 척'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때려 눕히신 것입니다. 나 자신이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나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좋은 의지를 가지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7:18중)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소원,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소원, 기도하고 그의 말씀을 읽기 원하는 소원, 주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소원 등, 이 모든 소원이 내 속에 있음을 나는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소원을 실천에 옮길 수가 없다는 것이 나의 큰 문제인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7:18하)

그러한 소원을 실천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만일 내가 이 모든 소원을 실천에 옮긴다면, 내가 얼마나 영적인 거인이 되었을까요? 소원은 있으나, 행할 수가 없으니,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7:19-20)

바울은 같은 말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16절과 17절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7:21)

내 속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는 동시에, 악이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7:22)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7:23-24)

사망의 몸, 이것 때문에 바울은 통곡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통곡하는 시점에 도달했듯이, 나도 이러한 시점에 도달한 것을 깨닫습니다. 나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선은 행치 못하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일은 계속하고 있으니, 나도 바울과 같이 절망의 시점에 이르러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는 외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불행히도 내가 이러한 절망적인 시점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이 했던 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절망의 시점에 도달했을 때에, 나는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어떻게 내가 이 절망의 자리에서 나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으랴?” 라고 하며, 나의 다른 육신적인 해결 묘책을 나는 찾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라는 육신을 개선해 보려는 자신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을까? 다섯 가지 규칙을 지켜라’ 라는 등의 인간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다시 외치게 됩니다.

하루는 내가 바울과 함께 이러한 절망적인 시점에 다시 도달하게 되었을 때에, 이 때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는 바울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외쳤습니다. 이제는 내 자신의 방법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해 보았으나, 실패하여 절망 상태에 이르러 도저히 재기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하여 내 자신의 노력을 중단하고, 이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맡겼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이상 내가 살아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살아 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의 능력에 맡겨 주님께서 역사 하시도록 하였습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긴 결과로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관계를 이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의 행한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희생한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이외에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승리의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구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을 통하여 나를 육신의 속박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며, 성령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으로 해결해 보는 노력을 하도록 지켜보고 계시며, 내가 절망에 이르러, 나의 노력으로 애쓰는 일이 끝이 날 때까지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얻을 때에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님을 보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만 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불행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창까지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우리가 승리를 얻을 때에,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처럼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 자신의 육신을 통해서 일한 것이 하나님께 영접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의 통곡의 질문의 내용을 보면,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밖에서 누가 나를 건져 주시기 바라는 호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 짓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7:25상)

누가 나를 구원해 주랴? 라는 질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7:25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나의 마음과 나의 영은 비록 내가 이몸에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욕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가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내가 완전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의 열심이 이러한 경지에 이르렀다는 인상을 준다면, 나는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금 넘어지게 되어, 내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 주실 것입니다. 내 자신은 결코 완전하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도 육체인 몸에 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에 거하는 동안, 나는 육신적인 죄성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내가 육신을 이기고 승리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승리할 때에, 나에게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나에게 저주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일부러 육신의 뜻을 쫓아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생각을 금하십니다. 이제 만일 내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완전히 쓰러진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셔서 다시금 주님 뜻대로 살도록 도와 주십니다. 나의 마음과 심령으로는 하나님을 원하고, 나의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나 자신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관계는 영을 쫓아 사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8장으로 들어 가겠는데, 8장에서 7장에 나오는 바울의 질문의 답을 얻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다가 절망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이 주간에도 하나님의 복 주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생활에서 당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셔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아멘.